

“대통령 8·15 경축사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정치 문제에 대해 아주 냉소적이 되어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이른바 운동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멀리 떨어져 다만 바라다 보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려고 경축사를 훑어보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슴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없다. 이번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건국 60주년’에 대해서도 단순한 단어 나열에 불과할 뿐 그 의미와 감격이 묻어나지 않는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사라지고, 경축사 컷머리를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라며 시작하는 것도 경박하기 짝이 없다. 혹 종족이나 부족의 역사는 있었어도 어엿한 국가를 수립해본 적이 없었던 신생국가라면 첫 건국의 의미가 클 것이므로 중점을 둘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대통령 자신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서 ‘5000년 한민족의 역사와 임시정부’를 거론하는 하지만, 이는 ‘육’을 피하기 위한 ‘끼워 넣기 용’이라는 느낌이 든다.

게다가 곧바로 ‘한 때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으로 붉은 깃발이 올라가기도 했다’며 갈등과 분열의 과거를 경축사 서두에 배치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국가 지도자, 혹시라도 남북의 통합을 희망하는 민족 지도자라면 무엇보다도 화합과 화해를 먼저 거론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밖에도 이번 경축사에서는 예를 들어 “경제 규모는 그 때보다 750배나 커졌고 1인당 소득도 300배 넘게 늘어났다”며 양적 성장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대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 번역가

메시지 없는 8·15 경축사

통령이 보기에는 지난 60년의 현대사가 ‘성공’ ‘발전’과 ‘기적’의 역사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우리 현대사가 과연 그러했는가? 물질적 성장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과정에서 힘들게 살다가 쓰러져간 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대통령이 너무 자주 ‘기적’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신화’가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라고 돌려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기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대통령의 호감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편향’의 근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지을 수 없게 된다.

‘현대사 박물관’을 새로 짓겠다는 제안 또한 어리둥절하다. 현재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현대사 박물관’을 추진한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비교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 쪽에서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영웅으로 만드는 ‘현대사 만들기’ 작업이 되겠지만 이에 저항하는 물질 또한 여간 거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대통령은 국민 화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혹 이번 경축사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으려면 ‘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현하는 사람들의 것이요,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반공과 싸웠고,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억압과 싸웠으며, 사회적 자유를 얻기 위해 차별

과 싸웠고 문화적 자유를 얻기 위해 편견과 싸웠다’라는 대목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나라에서 억압,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확대하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빈부와 종교의 차이, 사는 지역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점점 크게 만들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 다음 대목에서 ‘성숙한 자유의 구현’을 강조하였지만, ‘성숙한 자유’가 무엇인지 대통령부터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경축사는 장맛집 선거 공약과 다를 바 없는 내용들로 이어간다. 여기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집 근처에 문화·체육시설이 촘촘히 들어서게 하고, 각종 규제를 신속히 풀겠다”고 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부동산문제와 개발 열풍을 불러올 것이고, 이제까지 소외된 이들을 더욱 소외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분규와 거리 시위’가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대통령의 진단에는 불도저라는 그의 별명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직격하게 되고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서 우리의 책임은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인사치레용 언급에 그친 것도 현재 한일 관계에 비추어 아쉽게 짝이 없다.

“불자 된지 십 년 만에, 그거 신기하네요. 올림픽 경기도 마음공부와 닮은 점이 많군요.” 운치가 웃으며 말한다. 그는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전에는 한 번도 마음공부와 연관시켜 보지 못했다. 지난 번 올림픽까지만 해도 그냥 운동경기로만 보았다. 그런데 이번 북경올림픽은 달랐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불교의 마음 정진과 연결이 되며 생각이 되었다고 한다.

“올림픽과 마음공부는 닮았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78 한국불교 금메달 불심

변화하는 훈련만이 불자로서 승리를 보장한다.

역시 탐심은 안 된다: 금메달을 따고도 도핑한 것이 드러나 취소된 선수. 지나친 집착과 탐욕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준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정면으로 정진해야지. 쉬워 보이는 길이나 쉬운 편을 따라 가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악업을 짓게 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좌절할 일이나 사고가 있어도 훌륭한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은 금물이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자.

방심하지 않는 마음: ‘조금만 방심하면 체중 조절에 실패합니다’라는 선수들의 이야기. 조금만 방심하면 탐진체에 빠져들고 게을러진다.

마음집중의 중요성: 양궁, 사격은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마음 집중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다. 한 순간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가 0.1초의 격차를 만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금메달이 은메달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삶에서도 그렇다. 평소엔 자성 부처님을 찾고 내면에 깊이 관하는 연습을 해야 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이나 역경을 만나는 순간에 결정적인 마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코치: 뛰어난 실력을 기르려면 훌륭한 코치를 만나야 한다. 마음공부에서는 먼저 길을 가지고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법문을 접할 수 있으니 세계 최고의 코치들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아니, 지구뿐 아니라 우주 삼세 최고의 코치인 부처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잠깐, 코치는 완벽한데, 선수는?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고정된 바가 없다: 선수들의 기록을 보니 과연 제행무상하여 고정된 것이 없었다. 과거의 메달리스트나 세계기록 보유자가 이번 경기에서는 뒤처지는가 하면, 전혀 무명의 선수가 뜻밖의 승리를 하기도 하였다. 마음공부의 경계도 한번 넘어섰다고 남보다 나아졌다는 상을 세우면 안 되겠다. 나는 절에 십년 다녔지만 언제 뒤처질지 모르니 스스로 경계해야겠다. 이제 갖 들어온 선수(불자)가 곧 나보다 나은 기록(마음 정진)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불자로 다닌 횟수나 과거 잘 한 일만 믿고 상을 세우면 안 되겠다.

훈련만이 살 길: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같이 고된 훈련을 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한 결과다. 마음정진은 나의 중심심을 부처님 마음으로 조복 받는 훈련 과정이다. 아상을 하심으로, 집착을 공하게 놓는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을 인욕으로, 자기 싫지만 보시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훈련이다. 한마디로 혼자만 독생 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같이 공생하는 마음으로

불보살의 응원: 대-한민국 하며 응원할 때 사천팔백만이 함께 우리 선수를 응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마찬가지로 불자가 마음 정진을 하고자 하면 일체 부처님과 보살들이 응원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일체 올림픽 응원도 저러한데, 올바로 마음을 정진하려는 불자를 법계에서 왜 응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 깨달으신 본들의 공인한 응원의 힘은 보이고 들리는 인간의 합성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시방삼세에 항상 불자들과 함께 하시는 불보살님들의 지극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내자.

한국불교 금메달: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 전체가 기뻐하고 축하한다. 한국 불자들이 금메달 불자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불교가 금메달이 되어야 한다는 서원을 세운다. 마음공부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질 수 없다. 열심히 정진하시는 이천만불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인 스님들, 7연승한 한국 양궁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고 가르치듯 한국불교도 세계인이 배우게 되는 그 날을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올림픽을 보며 마음공부 구조가 생겼어요”라는 운치.

잘 살고 싶으면 마음 다스리면 되고!
업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마음공부 하면 되고!
성불하고 싶으면 열심히 정진하면 되고!
대-한민국 불교의 발전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화이팅.

범불교도대회에 ‘결불’은 없다

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 ‘현법파과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불교계가 이 긴 이름의 집회를 꼭 해야만 하는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기어이 여기까지 오게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정부가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고 ‘종교편향 문제 풀기’에 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불자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불심을 발동하여 해당 인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정부와 종단을 화해시켰다면 상황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종교편향의 책임 당사자들이 조금만 더 명쾌하게 인정하고 참회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다. 불교계에는 이처럼 이렇게 된 이상 불자들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상황에 경찰은 주요 불교계 인사들에게 회유성 편지를 띄웠지만 화만 더 돌은 꼴이다.

거기에 범불교도 대회의 ‘결불’을 피려는 시도까지 있어기가 막힐 뿐이다. 범불교도 대회는 순수한 종교집회다. 종교편향이란 내용이 다소 시국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이다. 이 신성하고 순수한 종교 집회에 결불을 쪼이며 편가를 얻어 보려는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불교계는 응수할 수 없다. ‘공우병’ 관련 단체나 특정 정당·범불교도 대회 참여를 용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에서 범불교도 대회의 ‘수배자 수배해제’ 요구도 불만하기 마찬가지다. 범불교도 대회의 성공 여부는 그 순수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에 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 법사

책자 안내

- 1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 2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 3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 4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5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 6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 7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 8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요식서 조성의의.
- 9 부록: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달마사

● 법 명 : 임수월하 보살(임 분상)

● 주 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 791번지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